

중국인의 사회관계(社會關係)에 작용하는 체면과 그 표현방식에 관한 논의

주민옥*

目 录

1. 서론
2. 체면정의
3. 체면과 사회관계
4. 체면 표현방식에 관한 선행연구
5. 중국인의 체면표현 방식
6. 결론

1. 서론

중국에서 체면연구가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시점은 그리 길지 않다. 1940년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중국의 인류학자 후시엔진(胡先縉)에 의해 처음으로 체면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이루어진 이래 본격적으로 체면연구가 시작된 시기는 대략 1980년대 초로 보고 있다. 이 시기 황광구어(黃光國)는 영미권의 체면모형을 중국 사회에 적용시켰으며, 처음으로 체면, 인정, 사회적 자원 등을 이론적 측면에서 상호 교차, 분석하였다. 하지만 서양의 체면과 관련된 개념들을 그대로 중국 사회에 적용하였을 뿐 새로운 해석이 결여

*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2014년도 사회과학연구(비(非) 학술등재지) 제5권 '중국인의 체면과 표현방식' 중 일부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 濟州大學 社會科技研究所 研究員

된 관계로 여전히 모호한 부분들이 다수 존재했다. 1990년대 들어서 대표적인 체면학자 자이수에웨이(翟學偉)에 의해 중국식 체면정의에 대한 그림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沈毅, 2003, 127-128쪽). 그는 체면을 리엔(臉)과 미엔(面)으로 구분한 선진 체면 연구자의 구분을 차용하되 다소 다른 체면정의를 나타냈다. 그에 의하면 모든 개인의 사회적 행위는 특정한 이미지를 갖는다. 그 이미지는 타인의 자신에 대한 서열지위(序列地位) 또는 심리지위(心理地位)를 매기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매겨진 서열은 상대의 체면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마음속에 높은 서열지위를 획득한 사람은 체면평가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翟學偉, 2004).

중국인에게 있어 체면은 이들의 사회심리 개념 중 하나로써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작용한다. 이를 관찰함으로써 사회교류 중 나타나는 중국인의 심리 과정을 효과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이에 체면의 정의와 그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는 중국인의 인간관계 맥락을 파악하는데 절대적이다(吳鐵鈞, 2004). 이렇듯 체면은 중국인을 이해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주요 사회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2000년대 들어 체면정의(劉繼富, 2008), 체면의 기능(吳鐵鈞, 2004), 중국인의 체면심리(趙昌平, 2010) 및 체면문화(姜彩芬, 2009)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중국인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체면을 관찰하고, 이들의 체면행위와 체면위협 행위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체면표현 방식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는데, 학술연구논문(예를 들어, 謝蒞宏(2002), 燕良軾 외 3(2007), 舒大平(2008))과 서적(예를 들어, 佐斌(1997), 田玉川(2012), 王文斌(2013))을 통해서 이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중국에서 체면연구는 매우 보편화 되어 있다. 중국인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연구임에 가능한 결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중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되 중국의 체면행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래서 실제 중국인에 의해 작성된 체면연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상호 다른 두 집단 간의 교류에 있어 당면한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상대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함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의 사회관계(社會關係)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체면을 이해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체면표현 방식을 구분하여 그 중 대표성을 가진 체면표현들을 따로 정리하였다. 이 곳에서 논의된 체면표현들은 중국의 체면관련 연구논문 및 서적에 실린 내용들이며, 이들에 대한 취사, 선택은 ‘공통성’, ‘비중도’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사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2. 체면정의

체면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격체와 완전한 자아를 찾고자 하는 개인의 주관적 욕구에 대한 반응”이다(陳虎強, 1999, 114쪽).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윤리도덕 규범을 준수 했을 때, 주변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체면이 상승할 수 있다. 또한 체면은 “사회 교류 중 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명성, 명예이면서 동시에 타인들에게 비취지는 자기 이미지(自我意象)”이다(王軼楠·楊中芳, 2005, 399쪽). 자연스레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행동을 실천하고, 이를 근거로 이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 행위가 타인의 후한 평가를 이끌어 내었다면, 당사자의 체면은 상승하게 된다.

이렇듯 체면은 하나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다. 장소, 인물, 인구통계학적 변인 그리고 국가 마다 상이한 문화에 따른 체면 정의를 달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이성 안에서도 체면의 대표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두 개념이 존재하는데, 앞서의 설명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체면의 도덕성과 사회성이 그것이다. 진야오지(金耀基, 2002)에 따르면 체면은 인간의 도덕성을 근간으로 하는

도덕적 미엔(道德性的面)과 사회성을 포함한 사회적 미엔(社會性的面)으로 구분된다. 이는 선행 체면연구자 후시엔진(胡先縉 作, 黃光國 編, 1989)의 체면 구분을 기본으로 하는데, 체면의 리엔(臉)은 전자의 도덕성, 그리고 미엔(面)은 후자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1) 윤리도덕 개념으로써의 체면

“체면은 인간지각(人際知覺)과 인간평가(人際評價)를 수반”한다(吳鐵鈞, 2004, 930쪽). 주변 사람들 서로가 상대를 지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체면이 구체화된다. 이러한 인간지각과 평가는 사람들 간의 상호교류 중에 발생하며, 인간관계 발전을 촉진, 지속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상대가 자신의 체면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도는 충분한가를 판단하여 상대와 자신 간의 인간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때로는 본인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지각하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서로의 체면행위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체면에 대한 인지능력을 키워나간다. 체면행위에서 본인 스스로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자아평가를 거친다면, 향후 마주하게 될 유사 체면위협 행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변에서 보다 나은 체면을 획득하는데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자기평가는 서양 심리학의 자아의식(self-awareness)과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나 정확히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을 인지한다는 것과 이를 기반으로 미래 잘못된 행동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한다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체면에서의 자기평가와 심리학의 자아의식을 단순히 동일한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체면과 인격(personality)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 역시 잘못된 접근이다. “세 개념들 모두 인간의 도덕적 관념과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모두 각기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吳鐵鈞, 2004, 929쪽).

이러한 맥락에서 체면을 인간 본연의 ‘도덕적 예의(道德性禮儀)’로 이해할 수 있다. 예의(禮貌)를 통해 자신을 높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講禮貌)이 이미지화 된다면, 결국 체면을 상승시킬 수 있다. 외부로 나타나는 본인의 이미지가 도덕적인 예의규범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면, 자신과 교류를 하는 사람들에게 존중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를 소홀히 다루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변의 냉담한 반응과 무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체면을 외부로 나타나는 본인의 이미지 그리고 이를 평가, 순서 짓는 타인의 서열심리로 이해하기도 한다(翟學偉, 1999). 상대가 본인을 어떠한 이미지로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본인의 체면 정도는 달리 나타난다. 상대의 외부 이미지에 대한 중요정도를 서열화하여 상대에 대한 체면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규범 안으로 자신의 체면을 위치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더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그들의 존경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마다 공인된 도덕규범과 이상적인 인격 기준이 다를 것이고, 개인의 언행은 이러한 규범 안에서 구체화된다. 개인의 언행이 사회의 보편적 기준과 부합되었을 때 비로소 체면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보편적 기준에서 벗어나 이를 위배하려 한다면 체면을 잃을 수 있다(沈毅, 2003).

2) 명성/명예 개념으로써의 체면

胡先縉(1989)은 체면의 ‘面’ 개념을 설명하면서 개인의 명예와 명성을 유지 혹은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체면행위로 보고 있다. 사회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존경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도덕성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 자신의 명성, 명예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고민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주변 사람들의 예우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체면 상승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명성을 높이는 데 보다 집중한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신분을 떠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일 수 있다. 사회적 신분이 높고 낮음

을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체면이 상승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추구한다. 이들은 상당한 시간과 공을 들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재화를 축적하고자 노력한다. 이들은 국가시험에 통과, 주요관직에 임명, 선거에서 승리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등 소위 타인이 부러워할 만한 일을 이룩하여 주변의 존중을 근거로 자신의 체면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에 체면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 구체화 되는 사회성파로써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성과에 대한 타인의 인정을 의미한다(沈毅, 2003). 사회에서 널리 중시되고 있는 명성, 명예 그 자체가 곧 체면이면서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것이다. 이는 “일생을 살면서 점점 상승되어져 가는데, 개인의 성공과 노력을 통해 획득, 축적 할 수 있다”(陳虎強, 1999, 112쪽). 그리고 이렇게 상승된 개인의 체면은 그들이 속한 집단으로 이전되기도 하는데, 좁게는 가족 넓게는 국가의 체면상승을 불러 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체면은 개인의 지위와 사회공헌 등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획득되는 존경과 순종을 의미”하고 있다(燕良軾 외 3, 2007, 120쪽). 개인의 사회적 지위, 사회에 대한 공헌 정도는 주변사람들에 의해 평가 되어 질 것이고, 이와 같은 평가는 그들의 존경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 체면은 ‘인간 행위의 표준’, ‘인격’, ‘지위’, ‘명예’ 그리고 ‘명성’임과 더불어 자신의 지위와 주변 사회에 대한 사회공헌 등으로 타인으로부터 획득되어지는 그들의 자발적인 존경의 마음이다(Ho, David Y. F., 1976).

3. 체면과 사회관계

과거 전통사회에서 체면은 “인간관계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吳鐵鈞, 2004, 930쪽). 그리고 시대변화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체

면은 여전히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 자기역할을 충분히 이행해 나가고 있는 중요변수 중 하나”이다(陳虎強, 1999, 112쪽). 현대인의 삶 안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태도는 시대의 변천과 맞물려 나름의 진화를 거치면서 꾸준히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개인은 본인이 속한 사회에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여 자신이 부여 받은 사회적 신분을 유지,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변의 친인척, 이웃, 직장동료, 친구들과의 상호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체면은 이들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胡秀濶, 2006). 개인의 행동은 사회적 지위에 부합하는 행동과 같은 수준이어야 하며, 자신의 언행은 현재 부여받고 있는 사회신분과 일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 결과로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았다면, 이는 곧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체면을 실현하는데 성공하였음을 의미한다.

체면관념(面子觀念)은 중국문화에만 작용하는 문화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체면 중시 행위는 유독 강조되어왔다. 체면 요인은 중국인의 일상 사회생활, 특히 사회교류 중 중요한 사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면은 중국인의 사회관계 중 발생하는 일종의 “전형적인 사회심리현상(典型的社會心理現象)”인 것이다(陳虎強, 1999, 112쪽). 그래서 중국인에게 체면은 이들의 사회행위를 지배하고 조절하는 하나의 중요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체면은 타인과의 상호교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당연히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상호작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와의 사회교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자신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외부로 발산하는 과정에서 체면행위가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면을 타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체면의 본질은 “자신의 인격이 외부로 나타난 표현”임을 알 수 있다(宋圭武, 2010, 91쪽). 물론 외부로 보여 지는 개인의 인격과 내면의 본질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로 표현된 형식이 내면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것의 본질이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의도적으로 내면의 악함을 숨겨 상대가 원하는 외형성을 갖추도록 조작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신의 체면을 우호적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지로 이해할 수 있

다. 외부표현 행태와 체면행위가 동일선상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혹 그것이 내재적 본질과 위배되는 거짓으로 나타나도 그 의도에는 이미 체면 유지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의도적인 거짓말이 자신의 체면유지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본인의 체면이 위협받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도적 선택은 체면을 유지/강화 하려는 인간 본질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체면 유지를 위해 타인의 본인에 대한 평가를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체면이 상승할 여지가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면전략은 결국 개인의 사회화의 결과이다. 그 노력의 적극성 혹은 소극성의 정도는 다르지만, 이들 모두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주변인과의 인간관계를 우호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다. 개인차에 따라 체면유지 전략 및 목표설정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체면행위는 궁극적으로 주변인과 양질의 사회교류 실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공통의 목표의식을 나타낸다. 실제 사람들은 타인과 이상적 인간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이들과의 협조적 사회관계를 추구한다. 체면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 작용한다(陳虎強, 1999). 체면은 누구나 중시하는 사회관계 요인 중 하나임으로 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체면은 타인과의 사회관계에서 발생하고 획득되어지는 요인임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의 학습 및 경험을 통해 구체화되고, 이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체면은 인간관계 중 형성되어 외부에서 구현된다(燕良軾 외 3, 2007). 개개인의 체면은 개인 활동만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실제 상호 교류하는 대상의 태도와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반드시 사회교류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들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나의 체면정도는 상대에 의해 결정되고, 마찬가지로 상대의 체면 획득 및 실추는 나에게 의해 결정된다. 자아의식 또는 자기반성을 통해 체면위협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나 체

면평가는 결국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체면은 반드시 타인과의 상호교류 활동 중에 비로소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4. 체면 표현방식에 관한 선행연구

유구(悠久)한 중국 역사를 거치며 중국인의 체면관과 더불어 이를 표현하는 방식 역시 변화를 거듭해왔다. 인간 상호교류 중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미 지 평가 중에서 새로운 대중언어와 속어 등으로 확산, 변화되어 왔다. 주위빈(佐斌, 1997)의 경우 사회생활 중 자주 사용되는 체면 표현들을 ‘중국인 체면 용어 간략어휘(中國人臉面用語簡明語匯)’로써 구분하고, 이를 편집하여 제시하였다.¹⁾ 그는 이를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체면의 ‘리엔을 활용한 용어(帶臉之用語)’, 체면의 ‘미엔과 미엔즈를 활용한 용어(帶面及面子之用語)’, 체면의 ‘리엔미엔과 관련된 어구(與臉面相關之詞語)’ 그리고 체면의 ‘리엔미엔과 관련된 속어, 속담(有關臉面之俗語)’ 등이다.

첫째 체면의 리엔을 활용한 용어에서는 25가지의 체면표현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디우리엔(丟臉), 우리엔(無臉), 스리엔(死臉), 게이리엔(給臉), 부야오리엔(不要臉) 그리고 메이요리엔(沒有臉)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체면의 미엔과 미엔즈를 활용한 용어에서는 다시 이들을 6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다.²⁾ 이에 대한 표현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대표적으로 쓰미엔즈(失面子), 상미엔즈(傷面子), 요(메이)미엔즈(有(沒)面子), 부야오미엔즈(不要面子), 화이(러)미엔즈(坏(了)面子), 치우미엔즈(求面子), 쟁미엔즈(爭面子), 지양미엔

1) 그는 이와 같은 체면 표현방식을 구분, 정리하면서 지방 방언에 대한 수집은 진행하지 못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지역 방언에서의 체면 표현방식을 포함하게 된다면, 그 정도가 훨씬 많아질 것을 예측하고 있다.

2) ‘쓰미엔즈와 관련된 용어(有關失面子的用語)’ 18개, ‘쟁미엔즈와 관련된 용어(有關爭面子的用語)’ 16개, ‘바오미엔즈와 관련된 용어(有關保面子的用語)’ 12개, ‘주위미엔즈와 관련된 용어(有關做面子的用語)’ 10개, ‘게이미엔즈와 관련된 용어(有關給面子的用語)’ 17개 그리고 ‘기타 미엔즈와 관련된 어구(其他面子詞匯)’ 10개 등이다.

즈(講面子), 지양지우미엔즈(講究面子), 바오미엔즈(保面子), 구미엔즈(顧面子), 아이미엔즈(愛面子), 바오후미엔즈(保護面子), 스야오미엔즈(死要面子), 게이미엔즈(給面子), 리유미엔즈(留面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체면의 리엔미엔과 관련된 어구에서는 13가지의 체면표현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디우런(丟人), 디우초우(丟丑), 추에드어(缺德) 그리고 부파초우(不怕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체면의 리엔미엔과 관련된 속어, 속담에서는 30가지의 체면표현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무에게 표피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체면이 있다(人有臉樹有皮), 사람은 때릴지언정 체면은 손상 주지 말아야 하고, 욕을 할지언정 남의 잘못을 외부로 폭로하지 말아야 한다(打人別打臉, 罵人別揭短), 코는 단순히 코가 아니고, 얼굴 역시 단순히 얼굴이 아니다(鼻子不是鼻子, 臉不是臉), 개를 때리는 것도 주인의 체면을 살피야 한다(打狗要看主人面),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이지만, 뒤에서는 귀신이다(当面是人, 背后是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체면표현들은 중국인의 체면에 대한 인식 및 언어현상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인 개개인이 체면을 얼마만큼 중시하는가에 따라-농후(濃厚)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체면행위는 보다 복잡해지고, 그 변화 역시 다양해진다”(佐斌, 1997, 18쪽). 그리고 체면학자에 따라 체면을 중국인의 일상생활과 인간 상호 교류 중 영예(榮耀)로 판단하는가(趙瑩, 2007) 혹은 인간의 자존(自尊)과 존엄(尊嚴)으로 인식하는가(燕良軾 외 3, 2007)에 따라 약간씩 표현방식 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자오잉(趙瑩, 2007)은 체면을 명성, 명예, 즉 영예의 기본개념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그가 제시하고 있는 체면 표현방식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웨이위먼장리엔(爲我們長臉), 메이리엔지엔런(沒臉見人), 티미엔(體面), 야오미엔즈(要面子) 그리고 칸위더메엔즈(看我的面子) 등이 이에 포함된다.³⁾ 반면 이엔리양쓰(燕良軾 외 3, 2007)에 의하면 체면과 자존, 존엄은 상호 교환 가능한(互爲表里) 개념이다. “자신의 체면을

3) 그가 나타내는 체면 표현방식에서 개인 영예와 관계된 것 외에도 일상생활 중 쓰여지는 다양한 표현방식 역시 함께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丟臉, 不要臉, 臉皮厚, 給面子 그리고 留點面子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곧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타인의 체면을 손상시켰음은 곧 그의 자존심을 훼손했음을 의미한다”(燕良軾 외 3, 2007, 121쪽).⁴⁾ 이에 대한 체면표현들은 주어미엔즈(做面子), 게이미엔즈(給面子), 지에/쓰어미엔즈(借面子与賒面子), 정/바오추엔미엔즈(爭面子与保全面子), 칭미엔즈(撐面子), 디우/완웨이미엔즈(丟面子和挽回面子) 그리고 지야오환/정송미엔즈(交換面子与贈送面子) 등이다.

슈다핑(舒大平, 2008)의 경우 주위빈의 체면표현들을 다수 차용하여 설명하고 있되 그와 달리 체면 자체, 즉 미엔즈(面子)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이에 주위빈의 체면표현 구분에서 ‘체면의 미엔과 미엔즈를 활용한 용어’ 대부분을 그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생활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체면표현들을 덧붙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체면이 있고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에 이를 강조하는 현(很) 추가(很有面子), 한 개인의 체면정도 파악(一个人有多大面子), 타인의 체면유무(別人有面子)와 체면이 크지 않음(面子不大)에 대한 표현 등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체면평가의 경우 자주 개인의 범위를 벗어나기도 하는데, 만약 한 개인이 체면을 잃게 되면(丟了面子), 그의 가족들의 체면 역시 실추된다. “체면과 사회관계 내 모든 구성원은 밀접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체면은 모든 집단에 걸쳐 두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舒大平, 2008, 101쪽).

씨에후홍(謝葫宏, 2002)은 언어학의 관점에서 영문 언어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체면 관련 표현들을 중국어와 상호 교차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 간 교차 가능한 체면 표현들을 제시하였는데, 怕丟面子(afraid of losing his face), 不顧面子(no consideration for her feeling), 保持自己的面子(to save my face), 要臉面(to want to save one's dignity) 그리고 給臉(make sb. get prestige and favorable position) 등이다. 그에 따르면 “문화와 언어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는 언어

4) “在一个人极力維護自己的面子時，實際上他在維護自己的尊嚴；当一个人傷害了別人的面子時，實質上他是傷害了別人的自尊。”

를 포함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다. 언어는 이러한 문화의 주요 구성성분이면서 동시에 문화보존, 문화교류 그리고 (이를 사회에) 반영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로써 작용한다. 번역 역시 일종의 문화교류인데, 언어를 통해 상이 두 문화 간 교류를 가능케 하고 있다”(謝葫宏, 2002, 91쪽).⁵⁾ 그는 중미(中美) 양국의 언어에 나타난 체면표현 역시 실질적으로는 문화번역(文化翻譯) 단위에서 이해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5. 중국인의 체면표현 방식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체면관련 연구 또는 서적에서 논의된 체면표현들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가장 근접한 한국적 표현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인과 중국어 사전 그리고 다양한 중국 언론기사를 활용하였다. 중국인의 체면표현 방식을 한국어로 의역하기 위해, 첫째 중국인과 그룹 토의⁶⁾, 둘째 중국유학생들의 조언, 셋째 중국어 사전, 넷째 언론기사를 통해 그 쓰임을 구체화 하였다. 관련 체면 표현 방식을 중국인에게 제시하고, 어떠한 상황에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언론기사를 활용하였으며, 중국유학생과 함께 이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국표현을 찾하고자 노력했다. 중국어 사전은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사전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마다 체면표현을 제시하고 있는 범위가 서로 달라 이들 모두를 제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된 체면표현들은 다음의 규칙을 적용

5) “文化與語言有着相互依存密不可分的關係。文化包含着語言，并影響語言，而語言則是文化的重要組成部分，同時也是保存文化、交流文化和反映文化的不可缺少的工具。翻譯是一種文化的交流。翻譯通過語言進行兩種文化的互換。”

6) ‘중국인과의 토의’는 한국어를 모르는 3명의 중국인과 이루어졌으며, 이 곳에는 연구자와 2명의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유학생이 함께 하였다. 본 연구자가 관련 표현 방식을 제시, 설명하면, 이들 중국인은 이에 대한 추가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이를 중국 유학생들과 따로 추가 논의하는 작업을 거쳤다.

하여 취사, 선택되었다. 첫째 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소개되는 체면표현, 둘째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소개되는 체면표현, 셋째 일상생활 또는 실생활 언어자료⁷⁾에 자주 등장하는 체면표현 방식 순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체면표현 방식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구분틀(framework)을 적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체면구분은 주위빈(佐斌, 1997)의 ‘중국인 체면용어 간략어휘(中國人臉面用語簡明語匯)’ 구분방식을 따랐다. 이 중 ‘리엔을 활용한 용어(帶臉之用語)’와 ‘미엔과 미엔즈를 활용한 용어(帶面及面子之用語)’ 구분을 활용하였다. 이는 후시엔진(胡先縉 作, 黃光國 編, 1989)의 초기 연구가 체면표현을 리엔(臉)과 미엔(面)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한 방식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체면을 표현하는 서술어가 서로 같을 경우 리엔과 미엔 구분 없이 처음 논의되는 리엔에서 같이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디우리엔(丟臉)과 디우미엔즈(丟面子)는 같은 서술어 ‘丟’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의미 역시 거의 동일하다.

셋째, 상호 간 그 의미가 유사하면, 이 또한 같은 공간에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디우리엔(丟臉)과 메이요미엔즈(沒有面子)의 경우 그 형태는 서로 다르나 그 의미는 매우 유사하다.

1) 臉과 관련된 표현방식

(1) 디우리엔(丟臉): 쪽팔리다/게이~디우리엔(給~丟臉): 누구누구를 망신시키다/디우미엔즈(丟面子): 체면을 잃다/메이요미엔즈(沒有面子): 창피하다

‘잃다, 분실하다’ 의미인 동사 ‘丟’에 체면의 리엔을 합친 형태인 디우리엔(丟臉)은 중국인의 일상생활 중 가장 흔한 체면표현 방식 중 하나이다. 디우리엔은 사회 도덕질서를 해치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따르는데, 이는 집단의 해당 구성원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질타이다.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7) 중국인의 일상생활 대화 중 자주 등장하는 체면표현, 각종 미디어 및 SNS에 주로 등장하는 체면표현 방식.

악행이 알려지게 되면, 개인 품격에 큰 오점이 남게 된다. 이에 개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 또는 비열한 행위가 외부로 알려졌을 때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기 치기, 고객 속이기, 잘못된 판단 내리기, 사익을 위해 거짓 말을 하고, 불륜행위 등이 외부로 발각되었을 때의 체면실추 행위 모두 이에 해당된다(黃光國·胡先縉, 2011).

디우리엔에 조사 ‘給’을 추가하여 ‘누구누구를 망신시키다(給某某人丟臉)’로 그 의미가 확장되기도 한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밀접한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로 인해 가족, 친구, 학우, 동료, 이웃 그리고 국가 등과 우호적인 관계형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한 개인의 어떠한 사회행위는 그와 관련된 누군가의 행위로 대변되곤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사회규범에서 벗어나 주변의 질타를 받을 때, 단순히 자기만 쪽팔린(丟自己的臉)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창피함은 주변인들에게도 주어지곤(給周圍的人) 한다. 당사자와 그/그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체면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자신의 불량언행(不良言行) 습관으로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이미지가 손상되었을 때, 조사 ‘給’을 활용하여 이를 나타낼 수 있다(王文斌, 2013).

‘丟’에 미엔을 결합하여 디우미엔즈(丟面子) 형식으로 체면을 표현하기도 한다. 때로는 ‘丟’를 뒤로 두어 미엔즈디우러(面子丟了)라고도 표현한다. 디우미엔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혹은 사회규범을 위반하여 개인의 자존심과 존엄이 실추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다. 길거리에서 옷통을 벗고 앉아 이를 잡고 있는 노동자는 본인의 행동에서 창피함을 못 느끼거나 덜 느낀다. 반면 같은 행위를 부유한 어르신이 하고 있다면, 본인은 물론 주변 가족 모두 상당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燕良軾외 3, 2007). 디우미엔즈에서 역시 개인과 주변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 한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체면행위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일개 평민의 체면이지만 이를 잃게(丟) 되면, 그가 속한 사회공동체의 체면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의 존엄이 실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면을 잃게 되는 경우는 대개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 자신의 체면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하여 순간의 잘못으로 체면을 잃

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디우미엔즈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행동한 어떠한 사건에 대한 창피함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한다(田玉川, 2012).

반면 메이요미엔즈(沒有面子)는 디우리엔과 그 의미가 상당히 유사하다. 이 표현 또한 중국인의 일상생활 중 흔하게 쓰는 체면표현 중 하나이다(王文斌, 2013). 다만 상대적으로 디우리엔에 비해 좀 더 격식이 있는 표현이다. 메이요미엔즈는 직역하면 ‘체면이 없다’이고, 이를 의역하면 ‘창피하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명성, 명예의 수준이 기준 이하거나 목표에 다다르지 못해 느끼는 개인의 창피함을 나타낸다.

(2) 부야오리엔(不要臉): 뻔뻔스럽다

부야오리엔(不要臉)은 사회에서 타인들의 자신의 품격에 대한 평가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음을 나타낼 때 쓰인다. 이들은 사회 구성원 간 약속된 도덕 기준을 무시하더라도 개인의 사익을 챙길 수만 있으면 그만이다. 사회규범, 규칙 등을 가슴에 새기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의적 제약은 이들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자신의 체면행위에 부야오리엔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의 언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서 이들과 가까운 사람들도 이들과 교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철면피(厚臉皮)로 대변되는 이러한 사람들과 왕래하는 사람들이 적다보니 이들의 안하무인(眼下无人)식 행태는 더욱 강화된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대개 사리사욕(私利私欲)의 결과로 상대의 편의를 얻으려는 심리에 기초한다(黃光國·胡先縉, 2011).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법률상의 테두리에서 처벌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 대중들의 이들에 대한 비난 역시 공론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무서워서가 아니라 상대하기 싫어서 피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이들도 곤경에 처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때 사회와 주변인들은 이들의 곤경에 주위를 기울이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들은 일찍이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규범을 무시했고, 이를 따르지 않아 스스로 고립된 경우이다. 이들의 실패와 불행은 사회의 도의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 표현으로 스부야오리엔(死不要臉)이 있다. 그 의미는 ‘과렴치하다’ 혹은 ‘후안무치(厚顏無耻)하다’로 도덕성과 상관관계가 높고, 상당히 강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佐斌, 1997).

(3) 메이요리엔(沒有臉): ~할 낮이 없다

메이요리엔(沒有臉)에서 역시 사회 규범을 위배하는 개인의 행위를 읽을 수 있다. 이들 집단에게서 사회규범을 지키려는 개인의지를 찾기란 쉽지 않다. 부야오리엔과 그 의미는 상당히 유사하나 그와 비교해서 인간의 도덕행위를 더욱 강하게 강조한다. 인간의 도덕성 결여 행위에 대한 가장 강한 질책의 표현이다(黃光國·胡先縉, 2011). 대표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포기해 버린 사람들로 인식된다. 사이버 종교의 교주가 되어 일반인들에게서 물질적, 신체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 역시 이에 포함된다.

메이요리엔을 앞서의 디우리엔, 부야오리엔과 상호 비교할 수 있다. 체면실추 행위에 대한 평가에서 디우리엔이 가장 약하고, 부야오리엔 그리고 메이요리엔 순이다. “디우리엔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경험부족 혹은 단순히 몰라서 저지른 실수에 대한 체면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부야오리엔은 개인의 의지에 집중하는데, 의도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체면표현 방식이다. 메이요리엔은 그 보다 더욱 엄격한 체면행위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데, 자아의식 안에 체면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리엔(臉)에 대한 감각이 이미 상실된 상태를 의미한다”(黃光國·胡先縉, 2011, 55쪽).

2) 面과 관련된 표현방식

(1) 야오미엔즈(要面子): 체면을 중시하다

야오미엔즈(要面子)는 자신만의 특화된 무언가를 외부로 뽐내어 주변으로

부터 명성을 취득하고자 하는 행위를 통해 구체화 된다. 야오미엔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고, 재능이 뛰어나며, 사회관계가 훌륭하면서 품격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규범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자신이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거쳐 야오미엔즈는 상승한다. 자신의 명성을 상승시키기 위해 자신의 원래능력을 과대포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적정 수준의 과장법을 동원해 현실 환경에서의 자신보다 더 나은 자신을 이미지화 하여 외부로 나타낸다. 대표적으로 체면을 위해 자신의 현실은 고려치 않고 ‘역지로 허세를 부리려는 사람(打腫臉充胖子)’을 들 수 있는데(王文斌, 2013), 이들 내면에는 "죽어도 체면을 사수해야 한다는 ‘스야오미엔즈(死要面子)’의 심리가 작용"한다(佐斌, 1997, 14쪽).

그리고 “중국어의 야오미엔즈는 영어의 ‘to save face’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黃光國·胡先縉, 2011, 61쪽). 이는 야오미엔즈 안에서 사회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체면상승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불특정 다수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서 사회성은 매우 중요하다. 상호 간 우호적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은 이러한 공동체 삶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사회요소이다. 이 공간에서 자신의 체면이 실추되었다면, 주변인들은 당사자가 체면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이는 곧 야오미엔즈로 표현되며, 사회적 체면을 상승시키기 위한 개인의 노력으로 구체화 된다.

(2) 게이미엔즈(給面子): 체면을 세워주다/리유미엔즈(留面子): 체면을 세워주다

게이미엔즈(給面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의 노력으로 을의 명성, 명예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갑이 제3자에게 을의 아름다움과 여러 재능 등을 칭찬하고, 그들로 하여금 을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을의 체면은 갑으로 인해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본인보다는 상대의 체면 상승을 위한 것이며, 실제 갑의 을에 대한 적극적 지지는 제3자가 을을 존경할 수 있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사 게이(給)가 나타내는 ‘주다’의 참

의미가 실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상대에게 체면을 주는, 즉 상대의 ‘체면을 세워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黃光國·胡先縉, 2011).

이러한 의도성은 매번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못한다. 능력부족인 사람이 공직에 오르거나 자신의 상관이 되었을 때, 관례상 이들 앞에서 당사자를 치켜세울 수는 있어도 이들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사람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이기는 하나 게이미엔즈는 그 정도를 예측하여 만족정도(給的足与不足之分)를 평가할 수 있다(燕良軾외 3, 2007).

리유미엔즈(留面子)는 중국식 표현대로라면 ‘체면을 남겨주다’가 된다. 이는 게이미엔즈와 상당히 유사하게 작용하는 체면 표현이다. 이 둘 모두 나보다는 상대의 체면행위와 관계가 깊다. 누군가의 잘못을 외부로 폭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체면위협 행위로 특정인이 주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면, 당사자의 체면은 상당히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단순히 쪽팔림(丟臉)을 넘어 모양이 우스워질 수 있다(面子上不好看). 따라서 인간의 모든 체면행위에서 "상대의 체면 상승 가능성을 남겨주는(留下一点儿面子)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黃光國·胡先縉, 2011, 61쪽).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도 체면은 존재하는데, 이들의 개선된 모습을 기대한다면 이들이 더욱 난처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체면을 남겨 주어야 한다. 상식 수준의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대의 체면을 지켜 줄 수 있고, 상대의 자존심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

(3) 구미엔즈(顧面子): 체면·염치를 차리다

구미엔즈(顧面子)는 개인의 자존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나는 중요한 사안이 된다. 구미엔즈는 ‘체면·염치를 차리다’로 의역 가능하다. 여기서 동사로 활용되는 ‘顧’는 다양한 의미 중 ‘주의/고려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타인이 받을 영향 또는 역으로 주변인으로 인한 본인이

받을 영향에 체면이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자신의 체면치레를 위해 결혼, 생일, 환갑연에 준비되는 음식은 거하고, 초대되는 사람들은 지역인사, 유명 인이기를 바란다. 이로 인해 자신의 체면은 물론 주변인의 체면도 동반 상승한다. 구미엔즈에서 자신의 체면과 더불어 타인의 체면도 중시되는데, 부모는 자녀, 선생은 학생, 지도자는 구성원의 체면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들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본인의 체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면은 개인의 사회관계 중의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그들 개개인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특권”에도 영향을 미친다(黃光國·胡先縉, 2011, 23쪽). 자신의 자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 처신해야 하는 자세가 다를 것이고, 실천해야 하는 범위가 다를 것이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지 못하면 주변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벗어난 정도가 상당하면, 자신의 명성, 명예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변의 낮아진 본인에 대한 평가로 인해 자신의 구미엔즈는 위협받게 된다.

(4) 정미엔즈(争面子): 체면·면목을 세우다

정미엔즈(争面子)는 보통 '체면·면목을 세우다'로 의역 가능하며, 기존 유사 표현에 비해 자신의 체면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 ‘争’의 ‘쟁취하다’, ‘논쟁하다’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강한 개인 의지를 살필 수 있다. 이에 정미엔즈는 자신의 체면을 상승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함을 나타낸다. 만약 사회관계 중 자신의 체면이 실추되면, 자존심이 상함을 경험한다. 자연스레 감정상의 적지 않은 동요로 인해 정서상의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자기 나름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방법을 통해 자신의 실추된 체면을 만회하고자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정미엔즈를 이룩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나타난다. 특히 경쟁 관계에 위치하고 있는 상대보다 높은 수준에 자신을 위치시켰을 때, 정미엔즈를 실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교 간 스포츠 경기에서 모교를 빛내거나 국가 대항전에

서 승리를 거머쥐어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면, 정미엔즈로 이러한 체면행위들을 표현할 수 있다(黃光國·胡先縉, 2011).

중국인은 어릴 때부터 체면행위에 대해 학습하며 자라난다. 가정 또는 학교에서 그리고 주변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체면행위를 구체화 한다(田玉川, 2012). 학업성적을 우수하게 받아 가족 구성원과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학교의 자랑이 되고자 한다. 성인이 되어서는 진급을 하거나 공직에 올라 체면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들 모두 개인 노력을 통해 달성한 성과들로써 정미엔즈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3) 체면표현 방식의 구분

이상의 대표적 체면표현 방식 외에도 ‘지양지우미엔즈(講究面子)’, ‘푸이엔미엔즈(敷衍面子)’, ‘정지아미엔즈(增加面子)’, 아이미엔즈(愛面子), 주위미엔즈(做面子) 그리고 ‘지에미엔즈(借面子)’ 등 체면을 표현하는 방식은 너무도 많다. 그리고 체면표현과 관련하여 같은 서술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형태상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체면표현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다만 그 쓰임이 구어(口語) 혹은 서면어(書面語) 또는 사용빈도 및 경중(輕重)에 따라 약간씩 달리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체면표현 구분에서 공통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이들 대부분 리엔(臉)과 미엔(面)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덕성의 리엔은 상대적으로 체면의 부정적인 표현에 자주 등장한다. 창피함, 쪽팔림, 수치스러움 등을 나타내기 위해 리엔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체면 중시, 본인 또는 상대의 체면 세움 등의 중립적 또는 긍정적 표현에는 사회성의 미엔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사회에서 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과 사회규범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어겼을 시 감당해야 할 부담은 상당할 것이다. 이로 인해 본인의 어긋난 행동과 개인의 체면실추 정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명성, 명예가 떨어져 체면을 위협 받는 것보다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체면을 잃는 것에 대한 표현방식’이 주로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에 기인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자연스레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체면의 리엔에 초점이 맞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개인의 성과, 즉 자본축적, 시험통과, 시험우승 그리고 주요관직에 임명 등은 개인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체면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체면 유지, 보호와 관련된 표현방식’은 상대적으로 미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덕성은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 얻게 되고, 평생을 들여 유지, 관리해야 하지만, 명성과 명예는 단기적인 평가로 얻고, 순간의 성과들로 증명 가능하다(주민욱, 2014). 그러므로 도의적 행위를 통해 체면을 상승시키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체면보다 어려운 작업이다.

6.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중국의 체면, 중국인의 체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체면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체면의 정의에 있어 체면은 윤리도덕으로써의 체면과 명성/명예로써의 체면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체면을 중시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체면은 사회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마치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중국인에게 있어 체면은 마치 일상용품과 같아서 이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沈毅, 2003). 체면에 대한 중요도 만큼이나 체면을 표현하는 방식 또한 매우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이들 표현들은 도덕성의 리엔과 사회성의 미엔에 의해 구분되는데, 그 빈도는 후자가 전자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체면표현의 강렬함, 즉 ‘더 쪽팔림’, ‘보다 창피함’, ‘매우 망신스러움’ 등의 그 정도는 전자가 후자 보다 강했다.

이는 리옌은 사회에서 개인 도덕품격에 대한 자신감으로 대변되는 반면 미옌은 개인의 사회성으로 인한 타인의 승인으로써 명성/명예(劉繼富, 2008)를 의미하고 있음에서다.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리옌은 그만큼 체면표현에서 개인의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는데 용이함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체면표현 방식 중 ‘메이요리옌(沒有臉)’과 ‘메이요미옌즈(沒有面子)’는 같은 부정동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체면실추 행위를 표현하는 가장 강한 표현 중 하나로써 개인 도덕품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후자는 어쩔 수 없이 실추된 본인의 체면에 대한 창피함을 나타내는데 그친다. 이와는 상반되게 체면을 표현하는 동사는 서로 다르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유사한 표현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게이미옌즈(給面子)’와 ‘리유미옌즈(留面子)’를 예로 들 수 있다. ‘給’는 ‘주다’의 의미, ‘留’는 ‘남겨주다’의 의미를 각각 포함하고 있다. 동사의 쓰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체면표현들은 상대의 체면행위에 대한 배려와 관련이 깊다. 내가 아닌 타인의 체면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체면을 세워 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는 아직 시도하지 않았던 중국인의 체면표현 방식을 정리할 수 있었다. 실제 중국인의 일상생활 중 사용하고 있는 또는 이들의 인식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체면표현들을 본 연구를 통해 소개할 수 있었다. 비록 본 연구가 문헌연구를 통해 체면표현 방식을 구분하고, 이를 중국인과 중국유학생의 검증에 거쳤지만, 이는 한정된 객관화 작업이었을 것이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체면표현 방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면 한다. 이들 체면표현을 설명하고 있는 언어자료들에 대한 검증 및 실제 중국인이 각각의 표현들을 인지하는 그 체면정도를 구체화 하였으면 한다. 본 논문에서 논의된 체면표현 방식에 대한 구분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이에 여기서 다루지 못한 체면표현들을 찾아내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서로 구분할 수 있는 후속연구들이 이어졌으면 한다.

이에 덧붙여 사회관계 중 나타나는 체면관이 중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임을

검증하기 위해 서로 다른 민족, 집단 혹은 국가 간 비교사회학적, 비교언어학적 고찰이 요구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중국인의 체면표현 방식 연구가 보다 실증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인의 체면관을 인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언어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하되, 실제 중국인의 체면표현 방식 분석에 보다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주민옥, 『중국인의 체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Ho, David Y. F., (1976). "On the concept of f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1, pp.867 - 884.
- 陳虎強, 「論面子觀念: 一种中國人典型社會心理現象的分析(체면관념에 대한 논의: 중국인의 전형적인 사회심리현상에 대한 분석)」,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第30卷 1期, 1999.
- 胡先縉 作; 黃光國 編, 『中國人的面子觀, 見: 中國人的權力游戲(중국인의 체면관: 중국인의 권력게임)』, 台北: 巨流圖書公司, 1989.
- 胡秀潤, 「大學生社交恐怖症的形成与中國的面子文化(대학생의 사회교류 공포증의 형성과 중국의 체면문화)」, 『商丘師範學院學報』 第22卷 第6期, 154-157쪽, 2006.
- 黃光國·胡先縉, 『人情与面子: 中國人的權力游戲(인정과 체면: 중국인의 권력게임)』,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1.
- 金耀基, 『'面', '耻'与中國人行爲之分析(체면, 수치와 중국인의 행위 분석)』, 金耀基自選集,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2.
- 姜彩芬, 「面子文化產生根源及社會功能(체면문화생성의 근원과 사회기능)」, 『广西社會科學』 總第165期, 2009.
- 劉繼富, 「'面子'定義探新(체면정의의 새로운 탐색)」, 『社會心理科學』 第23卷 第5期, 2008.
- 沈毅, 「人際交往中的名与實—論'面子工夫'中的斷裂(인간교류 중의 명예와 득—saving face work의 단절에 관한 논의)」, 『學術論壇』 第4期 總第159期, pp.126-130, 2003.
- 舒大平, 「東西方文化中'面子'的比較和分析(동서양 문화 중의 체면 비교와 분석)」, 『大連海事大學學報』 第7卷 第2期, 2008.
- 宋圭武, 『碰撞中國社會經濟問題—面子, 血緣, 權力(중국이 대면한 사회경제 문제

- 체면, 혈연, 권력』, 北京: 中國經濟出版社, 2010.
- 田玉川, 『面子: 中國式人情運用技巧(체면-중국식 인정활용 기술)』, 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 2012.
- 王文斌, 『話說面子(화설 체면)』, 云南: 云南出版集團公司, 2013.
- 王軼楠·楊中芳, 「中西方面子研究綜述(중국과 서양의 체면 연구)」, 『心理科學』 第28卷 2期, 2005.
- 吳鐵鈞, 「面子的定義及其功能的研究綜述(체면의 정의 및 그 기능에 관한 연구의 종합적 서술)」, 『心理科學』 第27卷 第4期, 926-930쪽, 2004.
- 謝葫宏, 「從面子等語的英譯看翻譯的實質(체면 용어의 영어번역을 통해 살펴본 번역의 본질)」, 『惠州學院學報』 第22卷 第1期, 87-92쪽, 2002.
- 燕良軾 외 3, 「論中國人的面子心理.(중국인의 체면심리에 대한 논의)」, 『湖南師範大學教育科學學報』 第6卷 第6期, 2007.
- 翟學偉, 「个人地位: 一个概念及其分析框架(개인의 지위: 하나의 개념 및 그 분석 프레임)」, 『中國社會科學』 第4期, 144-157쪽, 1999.
- _____, 「人情, 面子与權力的再生産—情理社會中的社會交換方式(인정, 체면과 권력의 재생산—(인간)도리 사회 중의 사회교환방식)」, 『社會學研究』 第5期, 2004.
- 趙昌平, 「中國人愛面子的進化心理學分析(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의 진화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心理學探新』 第30卷 總第119期, 2010.
- 趙莹, 「東西方人的面子觀(동서양인의 체면관)」, 『新余高專學報』 第6期, 21-26쪽, 2007.
- 佐斌, 『中國人的臉与面子—本土社會心理學探索(중국인의 리엔과 미엔즈—(중국) 본토 사회심리학으로서의 탐구)』,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face on Chinese people's social relations and the ways of expression

Ju, Min-uk

Face is one of the concepts of psychosocial value to Chinese people and it is easy to find face behavior in their daily lives. Making observations of this concept can effectively be able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Chinese people. Face is the main social element to understand Chinese people. Face issue is generally studied in China. Because face is closely related to Chinese people's daily lives and these kind of studies are relatively easy to understand.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face which plays an important part in Chinese social relations. This study also focused on the ways of face expression that are usually used in their daily lives. The definition of face is divided in two ways, face as the morality and face as the fame and honor. Chinese people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eir face and they recognize face as one of their essential inherent values.

The ways of expressing face are as varied as the importance of face. The research showed that such expressions are basically classified by moral Lian and social Mian of face. This study also confirmed that the frequency in use of Mian is a little bit higher than using moral Lian but the strength of expressions of Lian, such as 'a shame', 'an embarrassment' and 'a dishonor' is much stronger than Mian is.

Key words : Chinese, the role of face, the ways of expressing face, Lian and Mian, social relations

투 고 일 : 2016. 5. 10. / 심 사 일 : 2016. 5. 15. ~ 2016. 6. 15. / 게재확정일 : 2016. 6. 16.